

2015년 지방직 9급(C책형) 국어 정답 및 해설
 - 남부고시학원 천의무봉 정원상 국어 -
 카페 : 천의무봉 정원상 국어(cafe.daum.net/jwskorean)

(2015. 6. 27. 해설)

"최선을 다한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정답 및 해설> (C책형)

1.	2.	3.	4.	5.	6.	7.	8.	9.	10.
①	①	③	②	②	③	④	④	③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②	①	③	②	④	②	①	③	④

1. [정답] ①

[풀이] ‘허구하다’가 맞고, ‘허구허다’는 틀리다. ‘허구하다(許久--)’는 ‘날, 세월 따위가 매우 오래다.’는 뜻이다.

2. [정답] ①

[풀이] ‘굳는’는 동사 ‘굳다’의 활용이다. 나머지는 모두 형용사이다. 일반적으로 관형사형 ‘-는’이 되면 동사, 안 되면 형용사이다.

3. [정답] ③

[풀이] ③번은 모두 중의적인 문장이다. 주격 조사 ‘가’가 있든 없든 여전히 중의성을 띤다. 어순을 바꾸거나 첨표를 붙이면 중의성이 해소된다.

4. [정답] ②

[풀이] ‘에너지를’이 아니라 ‘에너지의’로 고쳐야 뒤의 수식이 자연스럽다.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체언을 수식하게 된다.

5. [정답] ②

[풀이] ‘과장님은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다.’는 높임법의 사용이 적절하다. 참고로, 전화를 받는 사람도 높이는 상황이므로 ‘과장님께서서는’이라고 극존칭을 쓰지 않는다.

[오답]

①: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가 적절하지 않다. ‘많이’가 아니라 ‘꼭’으로 고쳐야 한다.

6. [정답] ③

[풀이]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감각의 중요성’을 말하는 글이다. 종을 치는 것을 시각적으로 볼 때 종을 치면 소리가 난다는 것을 안다는 의미와 가깝다.

7. [정답] ④

[풀이] 아내는 무능한 남편을 질책하고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외경하는 마음이 없다. ‘외경(畏敬)’은 ‘경외(敬畏)’와 같은 말이며, ‘공경하면서 두려워함’이라는 뜻이다.

8. [정답] ④

[풀이]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지는 장면이다. 대상을 나열하지도 않았고, 장면을 다양하게 제시하지도 않았다.

9. [정답] ③

[풀이] 「채봉감별곡」은 임과 이별 후 슬퍼하며 임을 그리워하는 내용이다. ③번의 「황조가」 역시 이별의 슬픔을 노래하는 내용이다.

10. [정답] ③

[풀이] 제시문은 <기술공학 시대의 문화>를 제목으로 한 글이다. (가)는 ‘기술 공학적 질서의 영향력’을 말하는 도입 부분이고, (다)는 ‘기술적 질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나)는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될 수밖에 없는 기술적 질서’, (라)는 ‘주체로 등장한 기술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글의 순서는 ‘(가)- (다)-(나)-(라)’가 된다.

11. [정답] ④

[풀이] 나머지는 모두 ‘평범한 사람들’을 뜻하고, ④번 ‘부창부수(夫唱婦隨)’는 ‘남편이 주장하고 아내가 이에 잘 따름. 또는 부부 사이의 그런 도리’를 뜻한다.

12. [정답] ②

[풀이] 제시문은 각자의 의견이 반영되면서도 조화로운 토론의 장을 만들자는 내용이다. ‘화이부동(和而不同)’은 ‘남과 사이좋게 지내기는 하나 무턱대고 어울리지는 아니함’을 의미하므로 제시문에 부합한다.

[오답]

① 동기상구(同氣相求): 같은 소리끼리는 서로 응하여 울린다는 뜻으로, 같은 무리끼리 서로 통하고 자연히 모인다는 말. = 동성상응.

③ 동성이속(同性異俗): 사람이 날 때는 다 같은 소리를 가지고 있으나, 자라면서 그 나라의 풍속으로 인해 서로 달라짐을 이르는 말.

④ 오월동주(吳越同舟): 서로 적의를 품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있게 된 경우나 서로 협력하여야 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3. [정답] ①

[풀이] ‘분류, 분리, 구분’이 들어가야 한다. ‘분류(分類)’는 ‘종류에 따라서 가름’이라는 뜻이며, ‘나눔’으로 순화할 수 있다. 그리고 ‘분리(分離)’는 ‘서로 나뉘어 떨어짐. 또는 그렇게 되게 함’을 뜻하며, ‘구분(區分)’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체를 몇 개로 갈라 나눔’을 뜻한다.

14. [정답] ③

[풀이] ‘곰살궂다’는 ‘태도나 성질이 부드럽고 친절하다.’는 뜻이며, 예를 들어, ‘곰살궂은 인정’의 형태로 쓰인다.

15. [정답] ②

[풀이] 임시변통은 될지 모르나 그 효력이 오래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사태가 더 나빠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은 ‘언 발에 오줌 누기’이다. 언 발을 녹이려고 오줌을 누어 봤자 효력이 별로 없다는 뜻이며, ‘동족방뇨(凍足放尿)’라고도 한다. ‘임기응변, 하석상대(下石上臺), 고식지계(姑息之計), 미봉책(彌縫策), 상하탱석(上下撐石)’ 등과 같은 말이다.

16. [정답] ④

[풀이] ‘부쉽지다’는 틀리고, ‘부서지다’가 맞다. 일반적으로 ‘부수다’의 활용은 ‘부쉘, 부셨다,

부섞서' 등으로 활용하지만 '부서지다'와 '부서뜨리다'는 탈락이 이루어진 단어이므로 암기해 두어야 한다.

17. [정답] ②

[풀이] 고유어에 대응하는 한자어를 함께 보일 때는 '대괄호([])'를 쓴다. 예를 들어, '나이[年歲], 낱말[單語], 손발[手足]' 등이 있다.

[오답]

③: 괄호 안에 또 괄호를 쓸 필요가 있을 때 바깥쪽의 괄호로 '대괄호([])'를 쓴다.

④: 같은 범주에 속하는 여러 요소를 세로로 묶어서 보일 때는 '중괄호({ })'를 쓴다.

18. [정답] ①

[풀이] 몽타주는 상형문자의 형성 원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제시문에서는 에이젠슈테인이 몽타주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상형문자가 합해져서 회의문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빌려 왔다고 했을 뿐이다. 즉, '아이디어를 빌려 온' 것이지 진짜 그런 원리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다.

19. [정답] ③

[풀이] 제시문은 '노동 시장'과 '생산물 시장'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대비(對比)하여 설명하는 글이다.

20. [정답] ④

[풀이] 감독조를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조를 3공사장으로 보낸다고 했다. '해체(解體)'는 '흩어짐. 또는 그것을 흩어지게 함'을 뜻하며, 소설 속에서는 잠잠해질 때까지 당분간 보낸다고 했으므로 ④번은 적절하지 않다.